

미·중 무역담판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

“변화 거부” vs “일방 접근”

정상회담 합의 험로 예고

트럼프 추가 관세 위협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양국 고위 관리들이 상대국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비판하는 막판 기 싸움을 벌이며 협력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달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난 회동한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정상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이 서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을 벌이며 협상을 중단했다가 이달 초 두 정상은 전화통화로 대화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무역 전쟁 해

결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7일 기자들에게 “그들(중국)의 접근법에 큰 변화를 보지 못했다”며 무역 전쟁 해결 가능성에 의구심을 던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시 주석이 양자(정상 회동)에서 이야기할 것이 훨씬 많을 수 있고 그러기를 바란다. 지금으로선 우리는 고갈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이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지적 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 커들로 위원장은 양국 의견이 여전히 어긋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더 많은 걸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중국의 벽을 돌파하는 데 갖춰진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정말로 변화를 거부하며 우리는 우리 기술과 혁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서 중국과 타협 가능성을 높게 보는 비둘기파로 꼽히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에 열려있다”며 낙관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협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측과 물밑 접촉을 지속해왔던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도 협상을 통한 무역 전쟁 해결에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미국의 요구가 지나친다는 불만과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고를 계속 던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이날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접근법이 무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믿는다”며 “반대로

더한 경제적 불확실성만 세계에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이첸카이 주미 중국대사도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백악관 내 대중국 강경파를 향해 강하게 경고했다.

백악관의 강경파가 긴밀히 연결된 미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추이 대사는 그런 것이 가능하거나 도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사람들이 그런 불화가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결과, 영향,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말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추이 대사는 “무역 현안들에 대한 협상의 열쇠는 양측 모두의 격정거리에 균형을 잡는 것이나 솔직히 이제까지 나는 미국 쪽으로부터 우리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보지 못했다”며 “한쪽이 많은 요구를 내놓고 다른 쪽은 모든 것에 만족해야만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출산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에 노동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쿄(東京)의 금속가공회사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연합뉴스

日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법안 야당 반발 속 중의원 본회의 통과

5년간 최대 34만명 수용

최근 일본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 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 지난 27일 밤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적극적 외국인노동자 수용정책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반대했지만, 여당은 이후 참의원 심의에 들어가 내달 10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참의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대폭 수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특정기능 1호와 2호는 2개의 새로운 제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기능 1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일정한 기능을 충족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농업과 건설 등 14개 업종이 해당한다.

일본어 능력과 해당 분야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체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특정기능 2호를 받으려면 숙련된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자격 취득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사실상 일본에 계속 살 수 있다. 아울러 가족들의 동반 입국 및 거주도 인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 업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최대 34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일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외국인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사실상의 이민정책’이라는 비판이 여권 일각과 보수층에서 제기됐다.

야당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대상 업종이 구체화 되지 않았고 수용 인원의 근거가 부족하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세한 지원 방안도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여당이 오는 29일부터 예정된 아베 신조 총리의 중남미 방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전날까지 중의원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시간은 겨우 17시간 15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북미 회담 막후 조울 앤드루 김 CIA 떠난다

그동안 북미 간 막후 조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계 앤드루 김 CIA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올해 말 CIA를 떠난다.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는 “김 센터장이 다음달 20일 CIA에서 시작하고 스탠퍼드대 산하 연구소로 옮길 것으로 안다”고 27일 전했다.

한 소식통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몇달간 머물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달 중순 방한했을 당시 일부 지인들에게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조직으로서 KMC를 신설하면서, 그 책임자로 CIA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였다가 은퇴한 김 센터장을 영입했다.

당초 그는 올해 여름까지 센터장을 맡을 계획이었으나, 6·12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북미가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직을 만류해 임기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직과 관련해 CIA 본부에서 26일 내부적으로 정식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CIA 국장 재직 시절 한반도 문제 관련 최측근 참모였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된 후로도 사실상 ‘오른팔’ 역할을 맡아 ‘한 탐’으로 일하면서 북미협상의 ‘키맨’으로 깊숙이 관여해왔다. /연합뉴스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동행, 김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앤드루 김. /연합뉴스

트럼프 “푸틴과 회담 취소할 수도”...우크라이나 협정 나포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협정 나포 사건을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어쩌면 나는 그 만남을 갖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나는 그런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12월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5일 러시아 해안경비대가 흑해와 아조프해를 잇는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을 무력으로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의 충돌 사건에 관한 국가안보팀의 “상세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G20 회담을 실제 취소할 의향을 내비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G20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회담 일정을 설명하면서 “두 정상은 무기 통제를 포함한 이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그가 (암살 지시) 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는 부인하고 있으며, CIA(미 중앙정보국)도 그가 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과 달리 CIA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의 살해를 명령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이 내용을 백악관, 의회와 공유했다고 WP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중허베이 화학공장 인근 폭발사고 22명 사망

중국 허베이(河北)성 장자커우(張家口)의 한 화학 공장 부근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나 22명이 숨졌다.

28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 장자커우 차오둥취의 허베이 성화(盛華) 화학 공장 부근에서 이날 새벽 1시에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또 사망자 수와 같은 22명이 부상했다. 부상자들은 인근 허베이 북방 제일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화물차 28대와 소형차 12대도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자커우 당국은 현장에 구조인력과 사고조사팀을 급파해 수습작업에 나섰다. /연합뉴스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